

준비는 끝났다... 결전의 날 “필승 코리아”

오늘 오전 11시 체코와 첫 경기

홍명보호가 운명의 체코전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을 소화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체코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하루 앞둔 11일(한국 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차바스 베르데 바에에서 훈련했다.

미디어에 18분만 공개된 훈련의 시작과 함께 태극전사들과 코치진은 센터서클 부근에 등글게 섰다. 홍 감독이 연설했고, 열중쉬어 자세의 선수들과 다른 코치진은 비장한 표정으로 들었다.

4분의 연설 시간 뒤 선수들은 그라운드를 크게 돌며 러닝했다.

이어 피지컬 코치의 지도에 따라 몸을 풀었다. 구령 소리엔 평소보다 기합이 들어 있었다.

전날 훈련에서 발목을 다쳐 조별리그 중에는 경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김태현(가시마)은 실내에서 홀로 훈련했다.

사전캠프에서 치른 트리니다도토바고와

무조건 이겨야 경우의 수 극복
패배 땀 개최국 멕시코전 부담
첫판 지면 역대 토너먼트 진출 '0'
홍 감독 “선수들 승리 긍정적”
비장한 각오 마지막 훈련 끝내



한국 vs 체코 역대 전적 비교	
월드컵 본선 진출 수	한국: 0회, 체코: 1회
월드컵 본선 진출 순위	한국: 25위, 체코: 39위
월드컵 본선 진출 횟수	한국: 12회, 체코: 10회
월드컵 최고 성적	한국: 4강, 4위(2022년), 체코: 준우승
월드컵 지역예선 성적	한국: 6승 4무 2패 (아시아 3차예선 B조 1위), 체코: 5승 1무 2패 (유럽 예선 L조 2위), 2무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 D 1위)
월드컵 출전 기록·목표	한국: 48개팀 참가 32강 토너먼트 경기, 32강 진출 및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 목표, 체코: 2006년 독일 대회 이후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 조별리그 통과 목표

평가전에서 깊은 태클에 발목을 다친 배준호(스토크시티)는 그라운드 옆에 마련된 고정 사이클을 탔다. 배준호는 조별리그 2차전부터는 필 수 있을 거로 전망된다. 나머지 24인의 태극전사는 훈련 파트너, 코치진과 함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한국은 12일 오전 11시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격돌한다. 여기서 승리하면 32강 진출의 5부 능선을 넘는다. 진다면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하는 2

차전의 부담이 커진다. 점점 불리해 “경우의 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역대 한국의 월드컵 도전 역사를 돌아봐도, 조별리그 첫판에서 패하고도 토너먼트에 진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에 체코전은 이번 대회 홍명보호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홍 감독은 앞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팀은 소홀함이 없었던 거 같다면서 “(1차전 승리 가능성에 대해) 내

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체코 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광역권인 사포판 일대의 스포츠 아레나에서 최종 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체코 대표팀이 멕시코에서 소화한 첫 공식 훈련이기도 하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담금질을 이어오던 체코 대표팀은 경기 전날인 이날에야 결전지인 과달라라하에 들어왔다. 해발 1561m 고지대에 있는 과달라라

스타디움 환경에 대비하고자 일찌감치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전 캠프를 차렸던 한국 대표팀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행보다. 이날 훈련이 열린 구장은 멕시코 프로축구 명문 CD과달라하라의 여자팀이 주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다. 당일 멕시코에 도착한 체코 선수들은 비행 피로가 무척할 만큼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소화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초반 15분만 취재진에 공개된 이날 훈련에서 선수들은 경기장 한편에 마련된 사이클을 타고 스트레칭을 마친 뒤 그라운드에 나섰다. 공개된 시간 동안 선수들은 가벼운 조깅과 볼 터치 위주로 훈련을 소화하며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한국과 체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은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 11시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kick-off한다. 글·사진=연합뉴스

광화문광장서 “대~한민국”... 12·19·25일 거리 응원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무더위에 각별한 대비도 당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는 날 서울 광화문광장이 대형 응원장으로 변한다.

서울시는 한국 대표팀 경기일인 12일, 19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광화문광장 경기응원’이 열린다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과 폭염 대비를 당부했다.

거리 응원은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일정에 맞춰 체코전이 열리는 12일 오전 11시, 멕시코전이 열리는 19일 오전 10시, 남아공전이 열리는 25일 오전 10시에 각각 진행된다. 시는 경기 시간이 출근 시간대와 맞물리



는 만큼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종로 일대 주요 도로, 인근 지하철역·버스정류장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화문·종로 일대 직장인과 방문객은 평소보다 여유 있게 이동 계획을 세우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더위 대비도 당부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는 시민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양산과 모자 등을 활용해 햇볕 노출을 줄이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와 KT, 붉은악마는 공동



① KT SQUARE ② 응원단상 ③ 메인무대 ④ 달레이스크린-1 ⑤ 달레이스크린-2 ⑥ 파트너사 체험존 ⑦ JTBC 야외 스튜디오

주최자로서 행사장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료 지원체계와 폭염 대응 대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사항은 운영사무국이나 대한축구협회·붉은악마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드민턴 퀸’ 안세영, 역대 최초 누적 상금 45억 돌파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사진)이 세계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커리어 누적 상금 300만 달러(약 45억7700만 원)를 돌파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11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안세영이 배드민턴 선수 사상 처음으로 누적 상금 3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BWF 공식 대회에서 집계한 상금 기준으로 남녀 선수를 통틀어 역대 최고액이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파죽지세로 세계 무대를 호령하고 있다. 아시아단체선수권대회와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 등 2개의 단체전을 포함해 올해 출전한 8개 대회에서 전연오픈(은메달)을 제외하고 모두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특히 최근에는 2026 BWF 월드투어 슈퍼 750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 오픈까지 제패했다. 2주 연속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도 연달아 금빛 스메시를 날리며 이번 인도네시아 오픈 우승 상금으로 전인미답의 300만 달러 고지를 밟게 됐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시즌에만 상금 100만 달러 (15억2500만 원)를 쓸어 담으며 이미 신기록을 작성한 바 있다. 지난 시즌 11개 대회에서 우승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운 안세영은 한 시즌 누적 상금 100만 달러를 훌쩍 넘겼는데, 이 역시 역대 배드민턴 선수 중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이다.



in 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